

# 탐색전은 끝...비교적 조용하던 FA 시장, 이번주 달아오를까

SK 와이번스 최주환 영입 적극적 움직임 보여

이번주부터 '본격 협상' 돌입할 가능성 높아

비교적 조용하던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이번주에는 달아오를까. 탐색전을 마친 FA 선수 측과 구단 측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FA 시장은 지난달 29일 막을 올려 열흘째 됐다. 계약 소식은 들렸지만 아직 굵직한 계약은 나오지 않았다.

김성현이 원 소속팀 SK 와이번스와 계약기간 2+1년, 총액 11억원에 계약을 맺으며 2021년 FA 계약 1호 선수가 됐다. 이어 김용의가 역시 원 소속팀이었던 LG 트윈스와 1년 총액 2억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양현종을 제외하고 이번 FA 시장에서 대어급으로 분류되는 최주환, 오재일, 허경민의 계약 소식은 아직이다.

물론 움직임은 있었다. FA 대어 선수 측과 구단 측은 각기 서로 만남을 가졌다. 대부분 첫 만남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

2020시즌 9위에 그치며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낸 SK 와이번스는 FA 최주환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 시즌 불박이 키스톤 콤비가 없어 고전했던 SK가 최주환 영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유연한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원형 감독 취임식에서 한 어린이 팬이 "최주환 선수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SK가 정말 영입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김원형 감독이 "기대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SK의 최주환 영입 시도가 사실상 공개되고 말았다.

SK는 지난 2일 최주환 측과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 SK는 이 자리에서 영입 의사와 더불어 최주환을 왜 필요로 하는지를 전달했다.

최주환의 에이전트는 SK 외에도 3개 구단과 만남을 가졌다. 최주환과 만남을 가진 구단 모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재일의 에이전트도 지난달 30일 삼성 라이온즈와 한 차례 만났다.

오재일의 에이전트인 리코스스포츠 에이전시는 FA 우규민의 에이전트도 맡고 있는 상황. 삼성은 내부 FA인 우규민과 이원석을 모두 잡겠다는 방침이다. 우규민 계약에 대해 논의하러 만난 자리에서 오재일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어 FA인 허경민의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역시 복수 구단이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내부 FA가 무려 7명에 달하는 두산 베어스도 차례로 FA 선수 측과 만남을 가지며 시장 분위기를 파악 중이다.

첫 만남 등을 통해 일종의 탐색전을 마친 만큼 이번주부터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본격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수년 전부터 각 구단들이 오버페이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또 신종 코로



왼쪽부터 최주환, 오재일, 허경민.

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소간 재정적 타격을 입은 구단들이 예산을 웃도는 금액까지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여러 팀들이 노리는 선수가 겹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또 계약 조건에서 엄청난 차이가 없을 경우 FA 선수들은 개인 상황 등을 고려하며 심사숙고할 수도 있다.

계약 성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지 몰라도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면 FA 시장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8월 10개 구단 단장들의 모임인 실행위원회가 열려 각 구단 단장들이 서울에 모인다. 이번주 초 FA 선수 측과 구단 측의 만남이 한층 활발해질 수도 있다.

김미희기자

## 광주FC 정원주 대표 사의 표명...단장·감독까지 공식



프로축구 광주FC 정원주 대표이사 사의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광주FC 정원주 대표이사

가 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고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 대표이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광주FC 내부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FC는 기영욱 전 단장이 구단으로부터 3억여원을 벌린 뒤 상환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구단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풀려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의 감사를 받았다.

또 팀을 1부리그 승격 시킨 뒤 단장 처음으로 6개월이 출전하는 파이널까지

진출시켰던 박진섭 감독도 올해를 끝으로 광주FC를 떠난다.

광주FC는 신임 감독 선임에 대해 후보군을 압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FC는 정원주 대표마저 사퇴로 팀을 이탈하게 되면 대표와 단장, 감독까지 모두 공식 상태가 된다.

현재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광주FC단장 대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며 "지침 수장들이 모두 공식 상태가 될 수 있어 사표를 최대한 만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 양의지 "내년 더 많은 경기 출전·좋은 성적 목표"

2020 조야계약 프로야구 대상 수상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BO 한국시리즈 6차전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4-2로 우승을 차지한 NC 다이노스 선수 양의지가 대형 검을 뽑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NC 다이노스의 포수 양의지(33)가 내년 시즌 더 많은 경기에 나와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조야계약과 일간스포츠가 공동 제정한 '2020 조야계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총 18개 부문 시상자가 가려진 가운데 관심이 쏠린 대상은 NC를 통한 우승으로 이끈 양의지가 차지했다. 양의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양의지는 올해 13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8에 33홈런 124타점을 기록했다. 출루율(0.400)과 장타율(0.603)을 합한 OPS가 1.003으로 정상급 공격력을 선보였다. 수비에서도 NC 투수진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도루저지율이 42.9%로 리그 1위였다. 한국시리즈에서도 공수에서 활약해 MVP에 선정됐다.

양의지는 2010년 조야계약 시상식에서 신인상, 2018년 대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다음은 양의지와 의 일문일답.

◆조야계약 시상식 대상을 받은 소감은.

"2018년에도 대상을 받았다. 큰 상을 한 번 더 주셔서 영광이다. 조야계약 시상식에서 신인상(2010년)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대상이다. 상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2018년에는 두산, 이번엔 NC 소속으로 대상을 차지했는데 기분은 어떤가.

"2년 전에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이라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상을 받아서 정말 기분 좋았다. 당시에는(한국시리즈에서) 준우승을 한 상태였는데 올해는 통합 우승을 하고 대상을 받으니까 더 뜻깊은 것 같다."

◆커리어 하이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시즌 초반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계속 믿어주셔서 반등할 수 있었다. 주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다. 좀 더 앞장서서 하려고 했고 한 경기 한 경기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게 쌓이다 보니 좋은 성적으로 연결됐다. 어릴 때는 마냥 우승하면 좋았는데 이제 베테랑이 됐다. 이전과 다른 감정이 밀려오더라."

◆체력 부담이 큰 포수지만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성적이 더 좋아졌는데.

"항상 여름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감독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명타자로 넣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됐다."

◆한국시리즈 우승 후 '집행검' 세리머니가 이슈였는데.

"회사에서 그 정도로 멋있게 만들어주셨을지 꿈에도 몰랐다. 게임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제작된 걸 보니가 멋있더라. 실제 트로피랑 맛 먹을 정도였다."

◆NC의 강점은 무엇인가.

"선수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와 프런트가 잘 뭉친다. 한 방향으로 잘 모이는 것이 NC의 강점이다."

◆내년 시즌 목표는.

"아프지 않고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내가 좋은 성적을 내면 팀 성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서선욱기자

## "김하성, 1월 2일까지 ML 협상 콘택트...수비 좋아"

내년 1월2일까지 계약 완료해야

김하성(25·키움 히어로즈)의 빅리그 진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8일(한국시간) "김하성의 포스팅이 시작됐다. 협상 기한은 내년 1월2일(현지 시간 1일)"이라고 전했다.

키움은 지난달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식 요청 공문을 보냈다. KBO도 그날 오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김하성에 대한 포스팅 공식 요청을 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공사가 늦춰졌다.

김하성은 내년 1월2일까지 계약 의사가 있는 메이저리그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계약

이 체결될 경우 한·미선수계약협정에 따른 이적료를 키움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협상 만료일인 1월2일까지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포스팅은 종료된다.

매체들은 김하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젊은 나이와 운동 능력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MLB닷컴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김하성을 영입할 수 있는 구단"이라고 소개했다. KBO리그에서 유격수로 뛰었지만 2루수와 3루수로 나설 수도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국을 거쳐 메이저리그로 건너간 타자는 2015년 강정호, 2016년 박병호가 있었다.



매체는 "김하성은 자주 강정호와 비교된다. 강정호는 2016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OPS(출루율+장타율) 0.867를 기록한 파워히터였지만 김하성은 콘택트, 수비, 운동 능력 등에서 더 낫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 임성재, 유럽판 '쩨의 전쟁'서 유종의 미 거둔다

임성재(22)가 2020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을 거두고,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달성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후 마지막 대회인 유러피언투어 원정경기에 나선다.

임성재는 오는 10일(한국시간)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메이라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유러피언투어 포인트 투 포인트 시리즈 최종 8차전 DP월드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DP월드투어 챔피언십은 유러피언투어 왕중왕전 성격으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대회이다. 총상금 800만달러(한화 약 87억원)가 걸린 대회로, 유럽판 '쩨의 전쟁'으로 불린다.

유러피언투어는 미국 PGA의 페덱스컵 포인트와 유사한 레이스 투 레이스(Race To Dubai)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포

인트 상위 랭크 60명만 출전이 가능하다.

임성재는 "올해 일정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한 끝에 유러피언투어 최종전에 나가기로 했다"며 "올해 치르는 마지막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큰 힘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임성재는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 IOC, 올림픽 선수촌 체류 제한...5일전 입소·2일후 퇴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1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수촌 체류 기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한국 시간) 이사회 후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

해 선수촌 체류기간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계자는 경기 5일 전 선수촌에 들어와야 하고, 경기를 마치면 늦어도 48시간 전에 나가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바흐 위원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

기 위해 선수촌 체류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도쿄올림픽 개막전과 폐막식은 선수들이 대거 빠진 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미희기자